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1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행동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해야 한다.
 - ② 오해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다.
 - ③ 사회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 ④ 비난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 낸다.
 - ⑤ 타인의 행동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물음) 이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QR코드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바코드에 비해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 ② 숫자가 아닌 문자에 정보를 담아 저장한다.
- ③ 이물질이 조금 묻어도 정보를 읽을 수 있다.
- ④ 상품 홍보 내용을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 ⑤ 판독기를 어느 방향에서 대어도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3. (물음) 이 방송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몸의 상태는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군.
- ② 낮보다 밤에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겠군.
- ③ 비가 와서 우울해지면 햇빛 밝은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좋겠군.
- ④ 밤에 잠이 많이 오는 이유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었군.
- ⑤ 평정심을 잃고 화를 자주 내는 것은 멜라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이겠군.

[4~5] 들려 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비유적 표현을 통하여 대담 내용을 환기하고 있다.
- ②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고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 ③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담자의 설명을 보충하고 있다.
- ④ 대담자에게 유사한 질문을 반복하여 쟁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5. (물음) '내 집 앞 눈 치우기'와 관련한 대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홍보 문구를 만들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하기
겨울에 눈이 오면 내 집 앞 눈 치우기
- ② 눈 내린 후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지만
집으로 온 청구서 과태료가 무섭다네
- ③ 눈이 쌓이면 사람들의 근심이 쌓이지만
눈을 치우면 봉사활동 시간이 쌓입니다
- ④ 서둘러 눈을 치우면 거리가 깨끗해지지만
여유를 갖고 눈을 보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 ⑤ 겨울에 조심할 것은 결코 화재만이 아닙니다
얼어붙은 빙판길이 당신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보기>에 착안하여 ‘삶의 목표’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이 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도예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자기 제작 첫 단계로, 자신이 만들 도자기의 모양과 제작 과정을 먼저 구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흙을 준비하여 도자기 모양을 만듭니다.

오늘은 물레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도자기 모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레를 이용해서 작업할 때는 정신을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을 도자기에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레를 돌릴 때는 손과 발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손으로는 점토에 가하는 힘을 조절하고 발로는 물레의 회전 속도를 조절합니다. 물레 회전에 의한 원심력과 구심력을 잘 이용할 수 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레의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거나 힘 조절이 안 되어서 도자기의 모양이 일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더라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도자기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자기를 빚은 다음에는 그늘에서 천천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햇볕에서 급히 말리게 되면 갈라지거나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여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한다.
- ② 자신의 관심과 열정을 추구하는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급하게 서두르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져야 한다.
- ④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 ⑤ 앞으로 이루려는 일의 내용이나 실현 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생각해야 한다.

7. ‘공정무역’과 관련한 글을 쓰고자 할 때, <보기>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신문 기사
 공정무역은 2000년 이후 유럽과 북미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 공정무역 전문 상점은 전 세계에 4천여 개, 슈퍼마켓을 포함한 공정무역 제품 판매점은 11만여 개가 있다. 공정무역 인증 제품도 3,000여 종 넘게 나왔으며, 2007년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세계적으로 평균 47% 증가하였다.
 - ○○신문 -

(나) 인터뷰
 “공정무역은 기존의 국제무역 체제로는 세계의 가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공정한 가격, 건강한 노동, 환경 보전, 생산자의 경제적 독립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난한 제3세계 생산자가 만든 환경 친화적 상품을 직거래를 통해 공정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가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생활협동조합 △△△ 조합장 -

(다) 통계 자료

1. 공정무역 인식지수(%)
 2. ‘아프리카 공정무역 연대’의 이익금 사용 내역(%)

지역	인식지수(%)
유럽국가	69
한국	13
세계평균	49

구분	비율(%)
사업 및 생산 지원	46
지역사회 개발	22
교육	16
보건·여성	9
기타	7

- ① (가)를 활용하여, 공정무역 제품의 판매액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공정무역을 통해 제3세계 생산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한다.
- ③ (가)와 (나)를 활용하여,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품의 다양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 ④ (나)와 (다)-1을 활용하여, 공정무역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함을 역설한다.
- ⑤ (나)와 (다)-2를 활용하여, 공정무역 연대의 이익금이 제3세계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8. <보기>는 ‘다양한 생물 종 보전’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수정·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I. 서론 ㉠
 생물 종의 멸종 상태

II. 본론

1. 멸종된 생물들의 문제점 ㉡
 가.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
 나. 다양한 생물 종 보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
 다. 무분별한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2. 생물 종들을 지키기 위한 방안

가. 다양한 생물 종 보전의 필요성 ㉢
 나. 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 협력 추진
 다. 다양한 생물 종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라. 멸종 생물에 대한 연구 ㉣

III. 결론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파괴의 연관성 고찰 ㉤

- ① ㉠에는 ‘사라져가는 생물 종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해야겠어.
- ② ㉡은 하위 항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생물 종들이 사라지는 원인’으로 바뀌어야겠어.
- ③ ㉢은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I’로 옮겨 화제로 제시해야겠어.
- ④ ㉣은 ‘II-1-다’를 고려하여 ‘유전자 연구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고쳐야겠어.
- ⑤ ㉤은 글의 마무리로 적절한 내용이 아니므로 ‘생물 종 보전의 중요성 인식 및 생물 종 유지를 위한 노력 촉구’로 바뀌어야겠어.

[9~10] 다음은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기 위해 쓴 글의 초고이다. 9번과 10번의 두 물음에 답시오.

요즘 도시가스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 덕분에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특별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에너지 파수꾼’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의 여러 활동은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실천은 1년이 지나자 전기료만 ㉡수 백만원을 절약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양치질을 칫으로 받아 사용하기, 교실의 불필요한 전원 코드 뽑기, 낮 시간에 복도 전등 끄기 등 너무나 단순한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동아리에서는 교내 스위치 배치도를 ㉣만 들어졌습니다. 스위치에 연결된 정확한 공간을 알지 못해 꺾다 꺾다하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분위기가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 위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문단의 통일성을 고려해서 삭제해야겠어.
- ② ㉡은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므로 ‘수백만 원’으로 고쳐야겠어.
- ③ ㉢은 문맥을 고려할 때 바로 앞의 문장과 위치를 바꿔야겠어.
- ④ ㉣은 주어와 어울리는 서술어가 아니므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로 고쳐야겠어.
- ⑤ ㉤은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조성될’로 바꿔야겠어.

10. 위 글을 고쳐 쓴 후,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홍보 문구를 작성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3점]

<보 기>

- 대구의 형식으로 표현할 것
- 실천의 효과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참신함을 줄 것

- ① 집의 전등은 나 혼자 끌 수 있지만 학교의 전등은 우리 모두 꺼야 합니다
- ② 조그만 노력이 모여 큰 산을 만듭니다 작은 실천일수록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있습니다
- ③ 누구나 할 수 있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는 우리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 ④ 에너지의 낭비는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에너지 절약,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⑤ 이곳저곳 켜지는 전등 여기저기 낭비되는 에너지 스위치를 끄는 순간 미래의 전등이 켜집니다

11. <보기>의 자료를 읽고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한글 맞춤법>

제40항

㉠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예) 간편하게 → 간편케, 연구하도록 → 연구토록

㉡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예) 않다, 않지, 그렇다, 그렇고

㉢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예) 거북하지 → 거북지, 생각하건대 → 생각건대

㉣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결단코, 결코, 기필코, 하여튼 등

- ① ‘아뿔튼’이 아니라 ‘아무튼’으로 적는 것은 ㉠의 ‘간편케’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② ‘어떠든지’가 아니라 ‘어떻든지’로 적는 것은 ㉡의 어간의 끝 소리가 굳어진 것을 받침으로 적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군.
- ③ ‘생각하다 못해’를 ‘생각다 못해’로 적는 것은 ㉢의 어간의 끝 음절 ‘하’가 아주 준 경우이기 때문이군.
- ④ ‘넉넉하지 않다’를 ‘넉넉지 않다’로 적는 것은 ㉣의 ‘거북지’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⑤ ‘하마터면’이나 ‘요컨대’와 같은 부사는 ㉣의 규정을 따른 것이군.

12. <보기>의 빈 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_____.
- 복은 또 다른 복을 _____.
- 그는 속으로 쾌재를 _____.

- ① 말하다 ② 부르다 ③ 여기다 ④ 외치다 ⑤ 생각하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염병 환잔데, 왜 가족을 한 침대에 그냥 재웠느냐고? 하긴 그렇다. 그러나 ㉠3등실에는 간호하는 가족들이 누울 침대라는 없다. 차디찬 청바닥—모두 신을 신은 채 다니는 먼지투성이의 청바닥뿐이다. 물론 3등실에 입원하는 사람들은 3등 인간이란 건지 모른다. 그들의 가족들도 따라서 3등 인간이기 때문에 병상 곁 청바닥에서 노다지 자야 하고.

오롱댁 심작은둘 노과의 딸에게도, 어머니가 중증 폐결핵에 장질부사까지 겹쳤으니, 같은 침대에 자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당부를 해두었던 것이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어코 어머니 곁에만 꼭 붙어서 잤다. ㉡순제 자기는 3등 인간이 아니라고 고집이라도 하듯이. 그런 것까지도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

계단을 내려오면서, 김 의사는 그러한 그녀를 나무라던 일을 생각했다.

“어머님 곁에 가지 말했는데, 왜 자꾸만 그러지요?”

“.....”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답이 없었다.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역시 마찬가지다. 마치 귀머거리나 이방인 같다.

“무식이란 것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의사 김종우 씨는 거의 신경질적으로 뇌까렸다.

그제야 겨우 고개를 들고 이쪽을 쳐다보는 그녀의 차디찬 눈 초리에는 심상치 않은 의미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다.

—‘그런 것쯤은 알아요! 그러나 우짜란 말입니까!’ 이런 뜻으로도 해석되었다. 어머니와 같이 죽어도 좋다는 거라고.

더구나 의사 김종우 씨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어머니에게 ㉢미음을 떠먹일 때 자기도 그 숟가락으로 먹어대는 태연한 광경이었다. 물론 그런 건 더욱 엄하게 주의를 시켜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명령까지도 아예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명령한, 바로 그 의사가 보는 데서 예사로 그것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었다.

‘바보 같은 계집애!’

똥져라 싶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순간 이후, 의사 김종우 씨는 엉뚱한 회의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던 것이다—병을 겁내지 않는 애! 죽음까지도!

그저 얌전하고 착실한 의사의 아들로서 이른바 일류의 중학,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까지 일류란 테를 나온 레지던트 코스 의 젊은 의사 김종우 씨는 단순한 생각으로서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았다. 사람의 명과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눈알까지 해 넣고 심장 이식까지 할 수 있게 된 놀라운 현대 의학이론으로도 그러한 인간 행위만은 진단할 길이 없었다—효도니 뭐니 하는 그런 너절한 것이 아니다! 훨씬 본질적인 것, 어쩔 과학 따위에 의해서, 혹은 현대인의 그 약삭빠른 비굴성이랄까, 거짓 이기주의.....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말살되어 가고 있는, 그런 무엇이 아닐까?

요컨대 병과 세균과, 그런 것에서 오는 불행들만을 두려워해 오던 젊은 의사 김종우 씨는 어떤 막연한 정신적인 회의 내지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던 것이다. 여태까지 지녀오던 자기, 또는 자기의 일에 대한 보람이라든가 긍지 따위가 여지없이 무너져 가는 듯했다. 말하자면 무식하다고만 여겼던 시골

계집애에게 별안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중략>

물론 병원에서는 입원 수속이 돼 있지 않은 그녀에게 밥이고 ㉞죽이고 또 약이고를 내어줄 리 만무하였다. ㉟그녀에게 던져진 것은 오직 어머니의 입원 치료비 계산서뿐이었다.

그녀는 울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자기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군에 가 죽은 오빠가 생각났다. 그리고 마지막엔 일만 죽도록 하다가 고생만 바가지로 하다가 하루도 편한 꼴을 보지 못하고 돌아간 어머니가 불쌍했다. 가엾었다. 분했다.

이젠 누구의 동정도 받기가 싫었다. 뿔뿔하게 치료를 받지 못할 바엔 김종우 의사나 간호원들의 친절도 거북스러웠다. 결국 3등 인간이란 자학밖에 남지 않았다.

“처녀는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해요!”

김종우 의사는 무슨 요량으론지 수차 이런 말을 했지만, 강남옥 처녀는 결국 모든 걸 마다하고, 어머니를 따라 시체 안치소로 갔다.

시체 안치소란 데는 결국 사람이 아닌 시체만을 버려두는 곳이라 그런지, 사람이 거처할 곳은 못 되었다. 그저 먼지라기보다 흙밭이 사뭇 밟아놓은, 흙이 풀썩거리는 마룻바닥이었다. 다행히 누가 쓰고서 버려둔 듯한 가마니때기가 두어 장 아무렇게나 널려 있을 뿐이었다.

“좀 잘 나아 주이소이……”

강남옥 처녀는 쇠로 된 구루마에 실려 온 어머니의 시체를 인부들과 함께 내려놓으면서, 자칫하면 그 위에 쓰러질 뻔하였다. 벌써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있었다. 다만 핏발이 벌겍게 선 눈망울만이 눈물에 등등 떠 있을 따름이었다.

시체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은 시골 사람일수록 더했다. 인부들도 역시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그런 걸 이해해주었다.

“㉠오라버님이 군에 가 죽었다 카지요? 오라범만 살아 있더라도.”

어디서 듣고 알았는지, 인부 한 사람은 숫제 이런 목메는 소리까지 하였다. 물론 그들은 중환자의 운반이라든가 병원 허드렛일들을 맡아 하면서도, 마스크란 것을 온통 쓰지 않았다. 아니 그보다 돈만 낮게 준다면 호열자니 흑사병 환자라도 같이 잘 위인도 있었다. 무지막지한 3등 인간보다, 열병이니 호열자니 하는 것들보다 더 무서운 가난이란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세상이 바로 병원과 같은 것이기도 했다. 거추장스럽게 마스크 따윈 필요 없었다.

- 김정현, 「제3병동」 -

13.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의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인물에 대한 과장된 묘사를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④ 겉 이야기 속에 속 이야기가 포함된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⑤ 비현실적 요소를 삽입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4.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김종우는 강남옥의 병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했다.
- ② 인부들은 유족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였다.
- ③ 강남옥은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생각하며 가족을 원망했다.
- ④ 강남옥은 어머니의 병이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 ⑤ 김종우는 강남옥을 통해 의사로서 보람과 긍지를 얻게 되었다.

15.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와 ㉡는 새로운 사건 발생의 계기가 된다.
- ② ㉠와 ㉡는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 ③ ㉠는 갈등을 심화하고, ㉡는 갈등을 해소하는 매개체이다.
- ④ ㉠는 타인의 반발을, ㉡는 타인의 동조를 유발하는 소재이다.
- ⑤ ㉠는 인물의 태도를, ㉡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1969년 『신동아』에 발표된 「제3병동」은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려낸 작품이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보다는 물질을 우선시하고, 인간의 순수한 마음이나 도덕적 가치보다는 이익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머니를 간병하던 강남옥의 모습을 통해 인간 본연의 모습에 대한 지향과 믿음을 보여주었다.

- ① ㉠: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그리고 있다.
- ② ㉡: 강남옥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내적 고뇌를 드러내어 인간성 상실과 타락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④ ㉣: 물질만능주의 세태로 인한 주인공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타인의 아픔을 위로하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왜 사람들은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할까? 전문직 종사자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학자 스펜스는 이러한 현상을, 개별 경제 주체들이 상호 간 정보 보유량의 격차가 있는 시장에 참여하면서 그 문제를 조정해 가는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보량이 풍부한 쪽은 정보량이 부족한 쪽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결과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처럼 경제 주체의 속성을 알려주는 인지 가능한 행위나 형태를 ‘신호’라고 하며, 신호를 보내거나 받는 측을 각각 발신자와 수신자라 일컫는다. 이때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자신들이 신호를 보낼 능력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신호를 보낼 수 없는 다른 이들에게 핸디캡이 생기도록 만들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다는 것이다.

발신자가 보내는 신호는 그 성격에 따라 평가 신호와 관례 신호로 나뉜다. 먼저 평가 신호는 신호를 만들기 위해 높은 비용이 수반되는 신호를 말한다. 또한 신호와 발신자의 속성 간에 내적 연관이 요구된다. 따라서 수신자에게 높은 신뢰도를 줄 수 있다. 구직자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좋은 예이다.

반면 관례 신호는 신호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신호와 발신자의 속성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호를 말한다. 관례 신호는 발신자가 신호를 만들기 위하여 그러한 특성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호는 발신자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핸디캡을 감추기 위한 방편으로 자주 사용된다. 지식인처럼 보이기 위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전문 서적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평가 신호와 관례 신호 모두 기만에 노출되어 있다. 기만이란 신호와 관련된 속성을 갖지 못한 발신자들이 마치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신호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기 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한다거나, 학력을 위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수신자 입장에서 기만으로 인한 피해가 미미하다면, 발신자의 기만 행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만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기만을 적발 당했을 때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 낮다면 기만이 지나치게 확산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수신자는 발신자들의 신호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정직한 신호를 보낸 발신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1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관례 신호는 평가 신호보다 신뢰성이 높다.
- ② 경제 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량에는 차이가 없다.
- ③ 관례 신호는 평가 신호에 비하여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
- ④ 정보량이 부족한 쪽일수록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다.
- ⑤ 평가 신호는 관례 신호와 달리 발신자의 속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18. ㉠의 구체적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터넷 서점이 발달하자 학교 앞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박 씨는 매출액이 줄어 울상을 짓고 있다.
- ② 조류 독감이 유행하여 가금류의 소비가 크게 줄자, 양계장 주인 이 씨는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 ③ 제약 회사에서 제품 설명서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작성하여, 소비자가 약품의 사용 방법을 파악하기 어렵다.
- ④ 고급 외제 차량의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여 보험 업계의 손실이 커지자 국산 차량 소유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었다.
- ⑤ 값싼 수입산을 비싼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한 일부 음식점이 적발되자, 국내산 음식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하락하였다.

19.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를 접했을 때, 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수신자는 발신자가 보낸 신호가 정직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기만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수신자는 발신자들이 보내는 신호를 특정 방법을 통해 걸러내고, 이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호만을 가려낸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게 되면 수신자는 기만에 빠질 위험성이 줄어든다. 이러한 수신자의 활동을 ‘가려내기’라고 한다.

- ① 발신자의 ‘기만’이 확산될수록, 수신자의 ‘가려내기’는 쉬워지겠군.
- ② ‘가려내기’를 하는 이유는 ‘기만’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겠군.
- ③ ‘기만’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수록, 수신자는 여러 번에 걸쳐 ‘가려내기’를 수행하겠군.
- ④ 수신자가 발신자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려내기’의 중요성이 커지겠군.
- ⑤ 수신자가 ‘가려내기’를 수행할 경우, 모든 발신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감추려고 노력하겠군.

20. <보기>는 ㉠와 관련된 설명이다. 밑줄 친 말 중, 그 사용이 바른 것은?

<보 기>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 보여줌으로(방법, 수단): 보여주 + (-ㅁ) + 으로(씨) (조사)
- 보여주므로(인과): 보여주 + 므로 (어미)

- ① 그가 나를 믿음으로 나는 그를 배신할 수 없다.
- ② 시험이 어려웠음으로 학생의 점수도 떨어질 것이다.
- ③ 고등학생이 되었음으로 앞으로는 학업에 매진해야 한다.
- ④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 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값으로 남은 기간을 알차게 보내야 한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월이 변해 아궁이는 보일러로 바뀌었다. 보일러는 아궁이에 불을 때는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최근에는 콘덴싱 보일러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과연 콘덴싱 보일러의 원리는 무엇일까?

일반적인 보일러는 송풍기를 통해 들어온 공기를 이용하여 버너에서 연료를 태워 고온의 배기가스를 발생시키고 열 교환기에서 이 가스를 사용하여 내부에 흐르는 물을 데우는 방식이다. 이때 물을 데우고 난 뒤의 배기가스를 그냥 밖으로 내보내는데, 가스의 온도가 180도나 된다.

콘덴싱 보일러는 이 고온의 배기가스를 다시 이용하는 보일러를 말한다. ‘콘덴싱’은 물리학적으로 기체가 액체로 응축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배기가스의 뜨거운 기체가 차가운 물을 데운 뒤 액체로 바뀌기 때문에 콘덴싱 보일러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다. 즉 콘덴싱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의 열 교환기에, 배기가스가 가진 잠열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잠열 교환기를 하나 더 장착하고 있는 보일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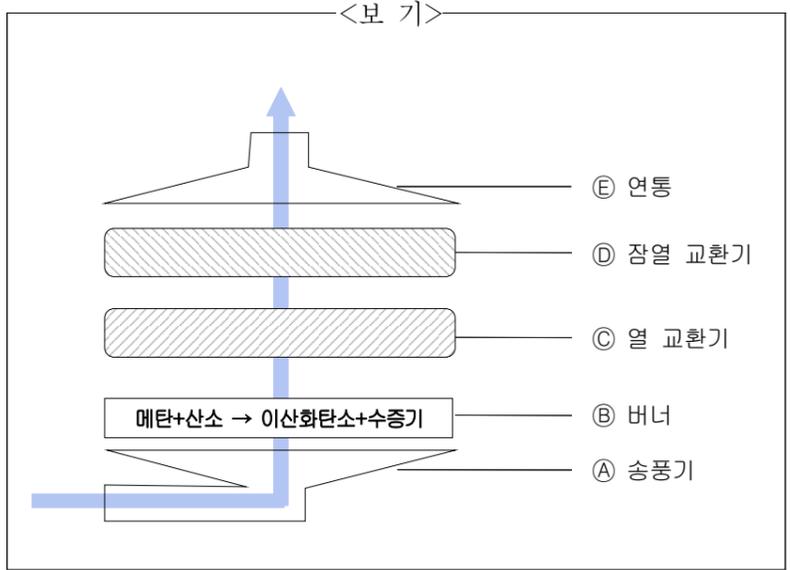
연료로 많이 사용되는 도시가스의 주성분은 메탄(CH₄)으로,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가 이루어진다. 이때 배기가스가 생성되는데, 이 배기가스 중의 수증기는 539kcal/kg의 잠열을 포함한다. 콘덴싱 보일러는 이 잠열을 잠열 교환기에서 회수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97%나 되며 이는 일반 보일러의 열 효율인 평균 82%보다 높다. 따라서 콘덴싱 보일러의 배기가스의 온도는 50~60도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 콘덴싱 보일러는 첨단 안전 제어 기술인 ㉠공기비례 제어기술을 채택하여, 과대 풍압 및 외부 악조건 등으로 연소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도 보일러에 최적화된 연소 상태를 만들어 유해 가스 배출을 줄이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일반 보일러도 ㉡연료비례제어기술을 도입하고 있지만, 공기의 양과는 상관없이 설정한 온도가 높으면 연료의 양만을 많게 하기 때문에 연소 효율이 낮고 유해 가스도 많이 나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고효율과 친환경적인 측면이 바로 콘덴싱 보일러의 두 가지 강점이다.

21. 위 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일러에서 일어나는 열전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콘덴싱 보일러의 명칭과 관련하여, 그 원리를 밝히고 있다.
- ③ 콘덴싱 보일러에서 잠열의 역할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콘덴싱 보일러의 열효율을 구체적 수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 ⑤ 콘덴싱 보일러의 열효율이 높은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22. <보기>는 위 글을 바탕으로 콘덴싱 보일러의 원리를 그린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를 통해 들어온 공기는 ㉡에서 연료와 만나 연소된다.
- ② ㉡에서 높은 온도의 배기가스가 발생한다.
- ③ ㉢를 통과한 배기가스에는 잠열을 가진 수증기가 들어있다.
- ④ ㉣를 지나면서 배기가스의 온도가 낮아진다.
- ⑤ ㉤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에 비해 유해 가스가 적다.

23.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보다 ㉡이 온도를 더 높게 설정할 수 있다.
- ② ㉠은 ㉡보다 최적의 연소 상태를 만들 수 있다.
- ③ ㉠보다 ㉡이 연료를 일정한 공기비로 연소시킨다.
- ④ ㉠보다 ㉡을 이용하면 연료를 적게 사용할 수 있다.
- ⑤ ㉠은 ㉡과 달리 외부 상황이 연소의 효율성을 결정한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집을 치면, 정화수(靜華水)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선선한 우물 집이었을래. 또한 윤이 나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平床)의, 갈앉은 뜨락의, 물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래.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려울 따름, 그 옆에 순순(順順)한 스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춘향이 마음이 아니었을래.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山神靈)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만리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水晶)빛 임자가 ㉡아니었을까나.

- 박재삼, 「수정가(水晶歌)」 -

(나) 향단(香丹)아 ㉢그넷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수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 나무와
베갯모에 뇌이듯한 풀꽃데미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밀듯이, 향단아.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波濤)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鞦韆詞)-춘향의 말 1」 -

(다) 심청일 웃겨 보자고 시작한 것이
술래잡기였다.
꿈 속에서도 언제나 외로웠던 심청인
오랜만에 제 또래의 애들과
뽕박질을 하였다.

붙잡혔다.
술래가 되었다.
얼마 후 심청은
눈가리개 형질을 맨 채
한동안 서 있었다.

술래잡기 하던 애들은 안 됐다는 듯
심청을 위로해 주고 있었다.

- 김종삼, 「술래잡기」 -

24. (가)~(다)를 묶어 평론을 쓰려고 할 때, 그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랑의 애수와 낭만
- ② 현실 인식과 역사의식
- ③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 ④ 전통의 시적 변용과 미적 효과
- ⑤ 자연의 이미지와 생명에 대한 성찰

25.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 상징 사전>

- 집: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 정착, 인간을 보호하는 여성의 원리
- 물: 생명을 유지시키는 존재, 정화, 순수, 여성성
- 바람: 확실히 있으나 붙잡을 수 없는 존재, 유동성
- 수정: 무색투명한 보석, 순수함, 영롱한 빛

- ① ‘윤이 나는 마루’가 있는 ‘집’은 서방님이 언제든 찾아와 머물기를 바라는 춘향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② ‘선선한 우물’과 ‘물냄새 창창한’을 통해 ‘물’의 이미지를 부각함으로써 춘향의 맑고 순수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바람’처럼 보이지 않고 붙잡을 수 없는 서방님이지만 그에 대한 한결같은 순수한 춘향의 마음을 ‘물방울의 찬란’함으로 드러내고 있군.
- ④ ‘흐느껴 물살짓는’은 바람을 머금은 물의 의미로, 춘향과 서방님의 감격적인 재회의 순간을 그리고 있군.
- ⑤ ‘물’의 이미지를 ‘수정빛’으로 표현하여 서방님을 향한 춘향의 아름다운 사랑과 순수함을 강조하고 있군.

2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추상적 정서를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 ② ㉡: 종결어미 ‘-까나’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 일상에서 벗어난 공간으로, ‘머언 바다’와 더불어 화자가 도달하고 싶은 이상적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 ⑤ ㉤: 소망이 좌절된 데서 생겨난 인간의 운명적 한계에 대한 인식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27. 다음을 (다)의 **술래잡기 하던 애**가 쓴 일기라고 할 때, (다)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 것은 언제나 신난다. ①오늘은 그 놀이에 심청이도 함께하게 되었다. 친구들과 큰 소리로 웃으면서 심청이의 집을 지나다가 혼자 마루에 앉아있는 그 아이를 발견했다. ②늘 외롭게 지내던 심청이는 술래잡기를 하며 우리처럼 웃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아이의 웃음을 보며 정말 즐거웠다.

우리는 깔깔 웃어대며 잡고 잡히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심청이가 술래가 되었다. ③눈을 가린 채 우리를 잡으려고 손을 뻗던 심청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서 버렸다. 우리는 그런 심청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심청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④심청이는 평생 눈을 가린 것 같은 어둠 속에 사셨을 아버지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나 보다. ⑤그런 심청이를 보면서 심청이를 놀리려고 했던 일을 반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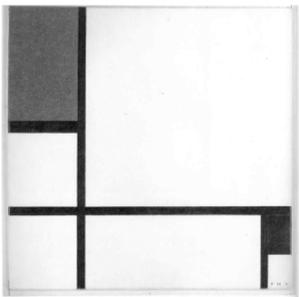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대부분 미술 감상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는 고상한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화를 감상하는 데 지식이 없어도 되듯이, 미술을 감상하기 위해서도 특별한 지식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감상이란 마음에서 느껴 일어나는 생각이다. ①자연을 감상하듯 편안하게, 열린 시선으로 미술 작품을 바라본다면 느낌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다.

미술 감상은 순간적인 시각적 판단에서 시작된다. 우선 눈으로 보기에 '좋다' 또는 '그렇지 않다'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눈으로 보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미술 감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제 20세기 추상 화가 몬드리안이 그린 '구성'을 감상해보자.

이 그림을 보면 왠지 엄격하고 고지식하며 정연한 느낌이 든다. 반듯 반듯한 것이 작은 일탈도 허용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이 그림이 가진 시각적·조형적 특질에서 비롯된 것이며 누구나 쉽게 느끼는 부분이다.



몬드리안의 추상화는 매우 단순하다. 그 단순함은 흰색의 여백, 검은색의 수평선과 수직선, 빨강·파랑·노랑 삼원색을 통해 엄격하고 분명하게 표현돼 있다. 그림에 비뚤어진 사선 하나, 원색을 섞어 만든 이차색 하나 없는 것을 볼 때, 근원적인 것만을 남기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에서 본원적인 질서와 규범을 향한 종교적·구도자적 엄숙성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몬드리안이 어떻게 수평선과 수직선, 빨강·파랑·노랑의 삼원색과 흑백의 무채색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는 그의 '나무' 연작을 통해 잘 드러난다. 우뚝 선 한 그루의 나무가 갈수록 단순화되면서 나무의 줄기와 가지는 점점 선으로 변해버리고 가지 사이의 공간은 평면으로 전환된다. 마침내 그 나무는

오로지 수평선과 수직선, 그리고 그것이 교차하면서 생긴 사각형만 남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무' 연작에 표현된 극단화된 단순 구성은 아무리 복잡한 사물도 그 근원은 하나임을 느끼게 한다.

몬드리안의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몬드리안에 대한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본다면 시대적 배경을 모른다 해도 그림에 드러난 가장 단순한 조형 언어를 통해 세계의 본원적 질서를 뚜렷이 느낄 수 있다.

28.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 ③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다.
- ④ 비슷한 다른 대상으로부터 유추하고 있다.
- ⑤ 통념에 대해 반대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다.

29. ㉠에 따라 예술 작품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것으로 문학을 재창조한 것이군.
- ② '봉산 탈춤'은 교통의 요지이며 상업 중심지인 봉산에서 발달한 것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욕구를 반영한 작품이야.
- ③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완성한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통해 베토벤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다.
- ④ '오페라 하우스'의 하얗고 둥근 지붕이 바다의 조가비, 배의 돛, 새의 날개 등을 연상시키면서 마치 바다에 와 있는 느낌을 주는군.
- 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이 한 말 '카르페디엠(현재를 즐겨라)'이 단순히 향락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님을 니체의 초월 사상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어.

30. <보기>의 관점에서 위 글을 비판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미술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사상과 미술사적 위치, 제작 당시의 감정, 가정생활, 성격, 작품의 제작 시기 등을 고루 이해해야 한다.

- ① 모든 사람들이 작품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가능한가?
- ② 작가의 의도가 작품을 통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 ③ 작품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가?
- ④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가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가?
- ⑤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감성보다 이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막에서는 바람 때문에 모래 위에 있었던 여러 흔적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한다. 바람이 불면, 사막의 모래 알갱이는 굴러가거나 공중에 떠서 이동하며, 특히 상승한 모래 알갱이는 지면에 떨어지면서 다른 모래 알갱이가 움직이도록 영향을 준다.

사막의 바람은 모래층에 물결 모양과 같은 흔적을 남기는데, 이를 연흔이라고 한다. 연흔은 바람의 방향에 대해 항상 수직이며, 바람의 속도가 느린 지역에서는 그 크기가 작고 바람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점점 커진다. 어떤 경우는 바람이 거의 쉬지 않고 불어서 모래층에 항상 연흔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때 모래 알갱이를 이동시키는 바람이 큰 암석이나 수풀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는 경우 사구가 만들어진다. ㉠바람은 장애물을 지나며 그 주위에서 갈라졌다가 장애물 뒤에서 합쳐지는데, 그 아래 부분에 바람 그늘이 생긴다. 이곳은 장애물 주위보다 바람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모래 알갱이들이 날려 들어가지 않게 되고, 이런 과정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구가 형성된다.

사구의 꼭대기 부분을 마루라고 하는데, 마루를 기준으로 마루를 향해 바람이 불어오는 부분의 경사는 완만하고 마루에서 바람이 불어나가는 부분은 급한 경사를 이룬다. 사구는 바람이 불어오는 부분에서 침식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나가는 부분에서 퇴적이 되면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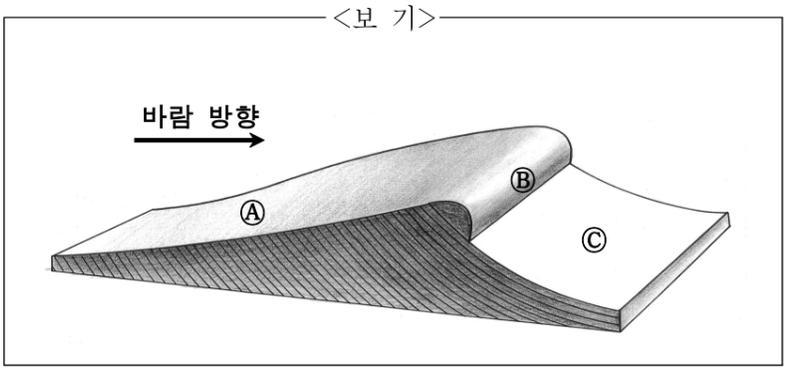
좀 더 자세히 보면 사구의 모래 알갱이들은 계속해서 강한 바람에 의해 마루까지 도약하며 넘어가게 된다. 마루에서 바람의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도약해서 올라가던 모래 알갱이들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의 사면에 퇴적되며 일부는 미끄러져 내려가기도 한다. 이렇게 모래 알갱이들이 마루를 넘어선 사면에 불안정하게 쌓이게 되면 그 아래로는 경사가 ㉡급한, 급사면이 만들어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정한 더미는 무너져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경사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그 전의 경사면 위에 새로운 층으로 쌓이면서 사구는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다.

사구의 급사면 위에 새로운 모래층이 쌓이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퇴적층을 사층리라 하며 이는 사구가 갖는 특징이다. 그리고 이 사층리는 퇴적된 모래층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곳에서 불었던 과거의 바람 방향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바람이 계속 불면 연흔은 생길 수 없다.
- ② 연흔은 바람의 방향에 대해 항상 수직이다.
- ③ 사구는 장애물을 만나면 방향을 바꿔 이동한다.
- ④ 사막의 모래층에 생긴 물결 모양의 흔적을 사구라 한다.
- ⑤ 마루를 향하여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경사는 매우 급하다.

36. <보기>는 사구의 형성과 이동을 그린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C보다 바람의 속도가 빠르며 모래의 침식이 일어나겠군.
- ② B는 A에서 밀려온 모래가 불안정하게 쌓이는 부분이군.
- ③ B에 모래 더미가 쌓이면, 그로 인해 B와 C 사이에 급사면이 만들어지겠군.
- ④ B를 조사하면 과거에 불었던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겠군.
- ⑤ B가 무너지면 C에 새로운 모래층이 퇴적되면서 사구가 이동하겠군.

37. ㉠과 유사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늘로 날아오른 낙엽이 돌담을 타고 더 위로 올라갔다.
- ② 축구공을 힘껏 찼지만 마주 부는 바람 때문에 멀리 가지 못했다.
- ③ 비포장도로를 운전해 시골집에 도착했더니 자동차 뒤 유리가 뿌옇게 되었다.
- ④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내려가는 아이의 머리카락이 온통 헝클어져 있었다.
- ⑤ 정류장에서 서 있던 사람들의 옷이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그 방향으로 휘날렸다.

38.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물살이 매우 급하다.
- ② 급하게 언덕길을 달려가다.
- ③ 그의 병세는 급한 고비를 넘고 있었다.
- ④ 급한 고갯길을 넘어서자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 ⑤ 그의 급한 성미는 산더미 같은 일을 내버려두지 않았다.

[39~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우는 것이 빠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나락들락
 至지芻국忿총 至지芻국忿총 於어思사臥와*
 맑고 깊은 연못 속에 온갖 고기 뛰노는구나
 세상 밖의 깨끗한 일이 어부 생애 아니겠느냐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어옹(漁翁)을 비웃지 마라. 그럼마다 그려있더라
 至지芻국忿총 至지芻국忿총 於어思사臥와
 사계절 흥이 한가지나 추강(秋江)이 으뜸이라
 간밤의 눈 갠 후에 경물(景物)이 달라졌구나
 이어라 이어라
 앞에는 만경유리(萬頃琉璃)* 뒤에는 천첩옥산(千疊玉山)*
 至지芻국忿총 至지芻국忿총 於어思사臥와
 선계(仙界)인가 불계(佛界)인가 인간(人間)이 아니로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 이어라 이어라: (노를) 저어라 저어라.
 * 至지芻국忿총 至지芻국忿총 於어思사臥와: 노 젓는 소리와 노를 저을 때 외치는 소리.
 * 만경유리(萬頃琉璃): 유리처럼 맑고 아름다운 바다를 이르는 말.
 * 천첩옥산(千疊玉山): 수없이 겹쳐 있는 아름다운 산.

(나) 하늘이 만드시길 일정하게 고루 하련만
 어찌된 인생이 이토록 괴로운고
 삼순구식(三旬九食)을 얻거나 못 얻거나
 십 년 동안 한 갓을 쓰거나 못 쓰거나
 안연*의 공간이 비었다고 나같이 비었으며
 원현*의 가난인들 나같이 심할까
 봄날이 깊어져 빠꾸기가 재촉커늘
 동쪽 이웃집에 쟁기 얻고 서쪽 집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피 조팔은 서너 되 안 되거늘
 춥고 배고픈 식구 이리하여 어찌 살리

<중략>

이 원수 이 가난 귀신을 어찌해야 여의겠나
 술에 음식을 갖추어서 이름 불러 전송하여
 좋은 날 좋은 때에 사망으로 가라 하니
 시끄럽게 떠들며 화를 내며 하는 말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희로우락(喜怒哀樂)을 너와 함께 하여
 죽거나 살거나 헤어질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서 뉘 말 듣고 가라고 말하는가
 우는 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꾸짖거늘

도리어 생각하니 네 말이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A] 너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나니
 일부러 피하여서 잔피로 여의겠나
 하늘이 준 이내 가난 설마한들 어찌하리
 빈천(貧賤)도 내 분수니 서러워하여 무엇하리
 - 정훈, 「탄궁가(嘆窮歌)」 -

* 안연, 원현: 공자의 제자로 청빈한 인물들.

(다) 커다란 바위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나는 하늘이 낳아 주어 땅 위에 살고 있네. 밥그릇을 얹어 놓은 것처럼 안정되고 뿌리박은 듯 탄탄하여 무엇이 부딪 쳐도 굴러가지 않고, 사람이 밀어도 움직이지 않지. 이렇게 내 본성을 지키며 생긴 그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으니 참으로 즐겁다네. 자네도 하늘이 내려 준 생명을 받아 사람이 되었지. 그런데 사람은 만물 가운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다면서 어째서 제 몸과 마음을 뜻대로 하지 못하고 항상 만물에 얽매어 남이 떠미는 대로 움직이는 건가? 때로 무엇이 유혹하면 거기 빠져 들어 헤어날 수 못하고, 때로 무언가 기다린 대로 오지 않으면 몹시 슬퍼하며 얼굴을 펴지 못하지. 또 남이 옳다고 여겨 주면 기가 살았다가 남이 배척하면 곧 움츠러들지 않나. 자신의 참된 모습도 잃어버리고 지조 없이 움직이는 것으로 사람만 한 게 또 어디 있겠나? 만물 가운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다는 것이 어찌면 이런가?”

나는 웃으며 이렇게 응수했다.
 “너라는 존재는 어디서 생겨난 건지 아나? 불경(佛經)에서는 이렇게 말했지. ‘우둔하고 어리석은 정신이 변화하여 나무와 돌이 된다’고. 그렇다면 너는 이미 신령스럽고 총명한 기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한 돌덩이가 된 것이지. 더구나 너는 옛날에 귀한 옥을 감싸고 있다가 그 옥을 꺼내려는 사람 손에 짝 갈라졌고, 옥이 많이 난다는 곤륜산에 불이 났을 때 옥과 함께 불타오른 적도 있지. 또 내가 만일 용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너는 반드시 디딤돌이 되어 내 발에 밟힐 것이고, 내가 죽어서 땅속에 묻히면 너는 당연히 나를 위해 비석이 되느라 깎여 손상되겠지. 이게 바로 남 때문에 움직이고 본성을 해치는 것 아니겠어? 그러면서 도리어 나를 비웃을 수 있겠나?”

[B] 나는 안으로는 참된 것을 가득 채우고, 밖으로는 만물에 대한 집착을 비웠다네. 그래서 혹시 나 아닌 어떤 것 때문에 움직이게 된다 해도 마음까지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니고, 누가 나를 떠민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불만을 갖지 않네. 상황이 닥쳐오면 행동하고, 불러 주면 간다네. 갈 때는 가고 멈출 때는 멈추니, 좋을 것도 안 될 것도 없는 것이지. 자네는 빈 배를 본 적이 없나? 우리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갈 때 빈 배가 떠내려와 부딪치면 아무도 화를 내지 않지. 그렇지만 거기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모두들 비키라고 소리치고 욱하지 않았겠나. 나는 바로 그 빈 배를 닮은 사람일세. 그런데 자넌 어째서 나를 꾸짖어 대는 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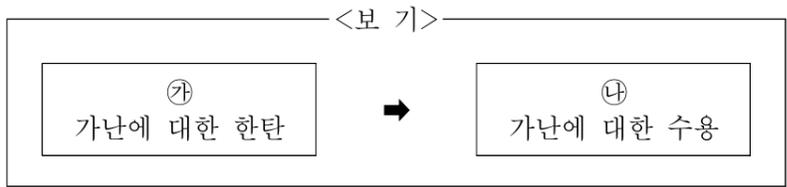
그러자 바위는 부끄러워하며 대답이 없었다.
 - 이규보, 「답석문(答石問)」 -

3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현실적 모순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갈등이 담겨 있다.
 - ④ (가)~(다)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드러나 있다.
 - ⑤ (가)~(다)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자세가 나타나 있다.

40. (가)를 국악 뮤지컬로 공연하고자 할 때, 그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절감을 드러낼 수 있는 무대 배경을 준비해야겠군.
- ② 주인공이 어부로서 자신의 직업의식을 드러내는 독창이 필요하겠군.
- ③ 배 띄우는 장면이나 노 젓는 장면에서는 코러스가 뱃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겠군.
- ④ 무대 효과를 사용하여 안개가 껴서 신비롭게 보이는 어촌의 풍경을 보여줘야겠군.
- ⑤ 탈속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해 고요하면서도 평화로운 느낌의 음악이 필요하겠군.

41. (나)의 시상 전개를 <보기>와 같이 그릴 경우,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빈곤한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에서는 고사 속의 인물을 이용하여 빈곤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에서는 빈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④ ㉡에서는 무력함을 꾸짖는 ‘가난 귀신’을 원망하고 있다.
- ⑤ ㉠에서 ㉡로 변화한 것은 ‘가난 귀신’과의 대화 때문이다.

4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와 달리 [B]는 과장법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B]와 달리 [A]는 상대의 말을 수긍하고 있다.
- ③ [B]와 달리 [A]는 규칙적인 음보 배열로 울격을 형성하고 있다.
- ④ [A]와 [B] 모두 대조를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대상의 의인화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본성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탄식하며 언제나 변함없는 바위의 모습을 닮고 싶어 한다. 이규보는 이 작품을 통해 바위도 변함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① ‘바위’와 ‘나’의 관점을 대비시키면서 ‘바위’의 삶을 긍정하고 있다.
- ② ‘바위’의 말을 ‘나’가 반박함으로써 도전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바위’와 ‘나’와의 비교를 통해 안정된 삶이 가치 있는 삶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바위’와 ‘나’의 대화를 통해 물질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⑤ ‘바위’는 기존의 인식을, ‘나’는 새로운 인식을 보여줌으로써 고정관념을 뒤집고 있다.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사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던 철수에게 영희가 말한다. “빨리 가야지.” 이때 철수는 “아차!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라고 말한다. 여기서 쓰인 ‘아차’를 우리는 감탄사라고 부른다. 감탄사는 흔히 문장 안의 다른 단어와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들로 ‘감동사’, ‘느낌씨’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품사를 분류할 때 기능·형태·의미라는 기준을 사용하는데, 감탄사는 우선 기능면에서 다른 품사처럼 수식 또는 서술 등의 문법적 기능을 갖지 않는다. 형태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활용이나 파생을 하지 않는다. 간혹 ‘여보게’, ‘여보시오’ 같이 청자 존대의 어미를 포함하여 활용을 하는 듯이 보이는 단어들도 있으나 이것은 ‘여보다’라는 동사가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축약된 형태로 굳어진 표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탄사의 의미는 상황에 의해 풀이되는 의미이다. 사전에 ‘어떠어떠할 때 내는 소리’, 또는 ‘어떠어떠할 때 쓰는 말’ 등으로 풀이되어 있음은 감탄사의 의미가 상황적, 화용론*적인 의미임을 말해 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감탄사는 어휘적 혹은 문법적 개념을 갖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세계를 기술하는 기술적 정보를 나타내기보다는 표출적 기능, 행동 유발적 기능 등의 역할을 한다. 먼저 표출적 기능은 화자의 내부 상태나 정신 작용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를 (1)처럼 분류해 보면, 화자의 감정이나 감각, 즉 느낌을 표출하는 것과, 화자의 인지 작용을 표출하는 것, 그리고 기원을 표출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1) a. 느낌의 표출: 아이고, 어이쿠, 어머니, 찻찻, 후유
- b. 인지 작용의 표출: 아차차, 아하, 정말, 참, 옳지
- c. 기원의 표출: 만세, 아멘

또 감탄사에는 대상으로부터 행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의지적인 정신 작용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2)처럼 동물을 부르거나 쫓을 때 내는 소리, 유아를 대상으로 어떤 행동을 일으키려고 내는 소리,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협동하여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힘을 모으기 위해 내는 소리 등이 포함된다.

- (2) a. 동물의 행동 유발: 구구, 워리, 워워
- b. 유아의 행동 유발: 곤지곤지, 도리도리, 자장자장
- c. 여러 사람의 힘을 모으는 역할: 영치기, 어여차

감탄사에는 하나의 단어만으로 의사 전달을 할 때 관례적으로 쓰이는 단어들도 있다. 이것들은 청자를 수신자로 하여 화자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며, 수신자를 전체로 하기 때문에 청자 존대와 비존대를 구분하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에는 (3)에서처럼 청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부름’이나 상대의 물음에 대한 인지 작용을 드러내는 ‘응답’, 일상생활에서 관례적으로 쓰이는 ‘인사’ 등이 있다.

- (3) a. 부름: 애, 야, 여보, 여보세요, 이봐
- b. 응답: 네(예), 오냐, 그래, 아니, 아니요, 암
- c. 인사: 안녕

* 화용론: 말하는 이, 듣는 이, 시간, 장소 따위로 구성되는 맥락과 관련하여 문장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의미론의 한 분야.

4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감탄사는 대상의 행동을 유발하는 기능이 있다.
- ② 감탄사는 외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때 사용한다.
- ③ 감탄사는 동사처럼 활용이 가능해서 다양한 형태로 쓰인다.
- ④ 감탄사는 문장 속에서 다른 단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 ⑤ 감탄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야 의사 전달이 가능하다.

45. <보기>는 ㉠과 관련된 설명이다. 밑줄 친 단어와 쓰임이 유사한 것은?

<보 기>

‘아이고’는 다양한 형태로 변용되며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부정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사용된다.

• (잃어버린 책을 발견하고) 아이고, 여기 있었네!

- ① (오랜만에 손자를 만나서) 에구, 내 새끼야.
- ② (힘한 산길을 가던 노인이) 으이구, 힘들어라.
- ③ (공부를 안 하는 아들을 보며) 어이구, 내 팔자야.
- ④ (골목을 돌다가 무서운 개를 보고) 아이구, 깜짝이야.
- ⑤ (물건을 훔쳤다는 모함을 듣고) 하이구, 생사람 잡겠다.

46.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분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갑: ㉠여보세요. 이 선생님 지금 계신가요?
 을: ㉡음, 지금 나가신 것 같은데요.
 갑: ㉢네, 알겠습니다.
 을: ㉣아차, 도서관에 가신다고 했는데, 깜박했네.

- ① ㉠~㉣는 문장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 ② ㉠과 ㉡는 상대방을 부를 때 관례적으로 쓰인다.
- ③ ㉠과 ㉢에는 청자를 존대하는 의미가 들어 있다.
- ④ ㉢는 상대의 발화에 대한 인지를 전제로 한다.
- ⑤ ㉣는 화자의 인지 작용을 표출한 것이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략 줄거리] 까치가 새로 보금자리를 짓고 온갖 우족(羽族)들을 초청하여 낙성연(落成宴)을 베풀 적에 본심이 흉악한 비둘기만 초청하지 않았다. 이에 비둘기는 까치에게 원한을 품고 까치의 집을 빼앗을 생각으로 잔치에 와서 횡포를 부리다가 까치를 죽이게 된다. 그러자 암까치와 다른 새들이 비둘기를 결박하여 관아로 끌고 가 재판을 받게 하나 정작 증인들은 비둘기의 보복이 두려워 사건을 잘 모른다고 하고, 비둘기의 뇌물을 받은 두꺼비는 위증을 한다.

“그때 한참 말다툼을 벌이다가 까치가 달려들어 비둘기를 걷어찰 적에 높은 가지에서 발을 잘못 디더 제 스스로 떨어져 죽었사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비둘기가 발로 차서 떨어져 죽었다고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사옵니다.”

라고 두꺼비가 말하되 군수 그 말을 듣고 두꺼비를 돌려보낸 후, “이 일을 어찌할꼬?”

하니, 책방 구진이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에 아뢰되, “저도 몰래 살피고 조사해 보니 비둘기가 애매한 것이 분명합니다. 성미가 고약한 까치가 성급히 제 스스로 기가 막혀 죽고 못 갠 것을 애매한 비둘기에게 뒤집어씌웠으니 어찌 누명을 써서 억울하지 아니리오?”

이때 옆에 있던 앵무새가 여쭙었다.

“비둘기의 처가 소녀의 사촌이오니, 사또님은 처지를 널리 살펴주옵소서.”

하고 간청했다. 이에 군수는 즉시 비둘기를 잡아들여 다시 문초했다.

“증인으로 나온 새들이 모두 너의 무죄를 주장하니 과연 사실인가?”

그러자 비둘기가 억울하다는 듯이 울면서 아뢰었다.

“소생은 근본 충효를 본받고자 하여 사서삼경과 외가서*를 많이 보았더니, 족히 육십사과를 짐작하오며 충효를 본받더니, 올해 정월에 그 해의 운수를 보았사옵니다. 그런데 그 점괘에 이르기를 운수가 불길하여 관재 구설수에 오를 것이므로 잔치를 벌이는 곳에는 가지 말라 하는 것을 소생은 이를

[A] 정녕 믿지 않고서 우연히 지나다가 까치의 잔치에 참석하여 이 지경을 당하였사옵니다. 오는 화는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 옳사오며, 며칠 전에 어려운 줄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옳습니다. 저 암까치가 사리판단을 못하고 소생을 모함하였으니 소신의 죽고 삶은 명철하신 사또 나으리의 처분에 있사오니 아뢰올 말씀이 없나이다.”

군수는 비둘기의 말을 다 듣고

“감영에 보고한 문서에 대한 회답을 기다려 결정하고 처벌하리라.”

하고 달아나지 못하게 가두었더니, 하루는 회답 문서가 도착하였거늘 형벌을 드디어 집행하되 증인들은 특별히 석방하고 정범은 곤장 세 대를 치고 풀어주거늘 비둘기는 기뻐하여 춤추며 하는 말이

“큰 죄를 면하기 어렵다는 말은 거짓말이요, 돈만 있으면 귀신도 하인처럼 부릴 수 있다는 말이 옳구나!”

하며 의기양양하여 돌아가는지라.

<중략>

㉠세월이 물같이 흘러 삼년지상(三年之喪)이 다 지나매 암까치 더욱 애통하며 지아비 원수 갚기를 주야 축원하더니 하루는 하늘이 도왔는지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한 난춘이란 양반이 암행어사로 민정을 살피려고 안악 고을에 내려왔다.

어느 날 할미새가 어사를 만났다. 할미새는 어사를 보자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손님은 이 고을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 할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이처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시오?”

“삼 년 전에 까치 부부가 새로 집을 짓고서 집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나타나 자기를 초대하지 않았다고 하여 까치를 발길로 차서 수십 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증인들이 비둘기로부터 돈을 받고서는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벌을 주지 못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어느 분 앞이라고 이 노파가 거짓을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렇다면 관아에서 다시 조사를 해보아주세요.”

어사는 혼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자 고을의 관아로 갔다. 어사는 임금의 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고을 사또인 보라매 군수는 즉시 자리를 내 주었다. 어사는 암까치를 비롯하여 두꺼비 등을 잡아들여 다시 문초를 시작했다.

어사가 먼저 암까치를 보고 물었다.

“네 남편이 남의 손에 맞아죽은 것이 분명하다 하는데 어찌 하여 살인한 자를 벌주지 못하였는가?”

암까치가 통곡하면서 어사에게 아뢰었다.

“사실은 비둘기가 연회에 참석하여 술에 많이 취한 후 여차 여차하여 소녀의 서방을 죽였사옵는 사실이옵니다. 그러하였으나 관아의 관리들이 모두 뇌물을 받고 거짓을 아뢰어 살인한 비둘기를 벌주지 않고 있나이다.”

암까치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서럽게 울었다. 그리고 두꺼비가 비둘기한테 뇌물을 많이 받고 본관 사또께 무고하여 아뢰는 말이며, 책방 구진과 수청 기생 앵무새 또한 뇌물을 받아먹고 본관 사또께 애절한 일들을 낱알이 아뢰니 어사가 크게 노하여 비둘기를 결박하여 대령시키고 호령했다.

“이놈아 듣거라! 너는 두꺼비에게 뇌물을 주어 간악한 흉계를 내어 국법을 어겼으니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두꺼비에게도 엄하게 말했다.

“네놈은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자 금과 비단을 뇌물로 받고 거짓을 고하였으니 너를 죽여 후세에 다시는 이와 같은 짓을 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삼으리라!”

두꺼비가 머리를 들지 못하고 황급히 여쭙었다.

“밝은 대낮에 어찌 추호도 거짓을 아뢰오리까? 소생은 집안이 워낙 가난하여 소소한 돈푼이나 받아먹고 국법을 어겼사오니 죽어 마땅하니 처분만 바랄 뿐이옵니다.”

- 작자 미상, 「까치전」 -

* 외가서: 유교의 경서(經書)와 사기(史記) 이외의 모든 서적의 총칭.

47.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할미새는 암까치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있다.
- ② 군수는 뇌물을 받았기에 비둘기를 풀어줬다.
- ③ 비둘기는 다른 인물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 ④ 앵무새는 뇌물을 받고 군수에게 비둘기를 잘 봐달라고 간청했다.
- ⑤ 두꺼비는 암행어사의 질책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48. [A]에 나타난 ‘비둘기’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연륜을 내세워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② 관용구를 인용하며 상대방을 훈계하고 있다.
- ③ 비슷한 사례를 들어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유교적 도리를 내세우며 상황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불길한 운수를 거론하면서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49.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우화형 송사 소설은 의인화 기법을 통해 당대의 봉건적 질서나 모순을 풍자·비판하는 소설이다. 송사 소설의 갈등은 당시 민중들의 부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되는데,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편적 질서나 윤리적 가치관을 파괴함으로써 송사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배층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선량한 민중들이 송사에서 패배함으로써 민중이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때로는 이상적 영웅이 출현하여 민중의 소망을 실현시켜 주기도 한다.

- ① 군수가 송사를 잘못 해결하여 민중들을 더욱 좌절하게 했군.
- ② 민중들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이상적 영웅으로서의 암행어사가 등장했군.
- ③ 비둘기의 행동이 윤리적 가치관을 파괴하는 것이었기에 송사로까지 가게 되었군.
- ④ 비둘기가 까치를 죽이게 된 이유를 부에 대한 비둘기의 욕망으로 볼 수도 있겠군.
- ⑤ 비둘기를 고발한 암까치를 통해 신분 차별에 저항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읽을 수 있군.

50. ㉠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을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편을 억울하게 잃은 암까치는 삼년상을 치르고, () 하면서 남편의 원수 갚기를 다짐하고 있었다.

- ① 절치부심(切齒腐心) ② 안하무인(眼下無人)
- ③ 각골난망(刻骨難忘) ④ 심사숙고(深思熟考)
- ⑤ 이심전심(以心傳心)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백입니다.